
서울시-UIA 간 업무 협의 출장 결과보고

2019. 4.

1 추진개요

□ 출장개요

- 출 장 지: 벨기에 브뤼셀
- 방문기관: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 방문일시: 2019. 4.2(화)
- 장 소: UIA 벨기에 본사(Rue Washington 40 B-1050 Ixelles, Brussels, Belgium)
- 참석규모: UIA 통계, 라운드테이블 담당자 등 2명, 서울관광재단 담당자 1명, 총 3명

○ 참가 목적

-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국제회의 개최순위 및 실적 발표기구인 UIA와 서울시 간 협력체계 구축
- 서울의 MICE 산업 발전 및 MICE 개최도시 서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 UIA의 국제회의 개최실적 통계 및 도시별 국제기구 등록 통계 등 활용방안과 서울의 개최통계 수집 기준과 UIA의 통계 승인 기준 간 적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서울 소재 국제기구의 코드화 등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UIA 신규 국제기구 등록 연계 효율화 방안 논의
- UIA Round Table Asia-pacific 서울 개최 논의

☐ 출장일정

일자	시간	일정	비고
4/1(월)	12:50~17:10	인천→비엔나	경유
4/2(화)	07:10~08:55	비엔나→브뤼셀	-
	14:00~17:00	UIA 기관 방문 및 회의	Rue Washington 40 B-1050 Ixelles, Brussels, Belgium
4/3(수)	16:50~17:05	브뤼셀→런던	· 갑작스런 항공기 결항으로 일정 및 항공사 변경 - 기존일정: 브뤼셀(네덜란드항공 15:05)→암스테르담 경유(네덜란드항공 21:25)→인천(14:50 도착) - 변경일정: 브뤼셀(브뤼셀항공 16:50)→런던 경유(대한항공: 19:35)→인천(14:35 도착)
	19:35~	런던→인천	
4/4(목)	~14:35		

2 서울시- UIA 간 업무 협의 주요 내용

□ 국제회의 통계 관련 주요 내용

○ 서울의 제출 데이터에 관한 논의

- 서울에서 제출하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
 - 서울에서 제출하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지금의 거의 제출 데이터 중 최고의 수준이라고 판단됨
- 다른 도시들의 데이터 수준
 - 싱가포르, 파리, 비엔나 등의 데이터 질적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개최실적은 적지만 부산의 데이터가 수준이 높고, 인천 데이터의 수준도 이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데이터의 인정 비율
 - 서울관광재단의 R&D팀에서 수집한 개최통계 대비 평균적으로 약 52% 정도의 실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최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최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UIA의 기관코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코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록해 주어야 할 것임
 - 서울에서 작년에 서울시 내의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연구가 UIA의 기구코드와 연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이 서울의 MICE 경쟁력을 높이고, UIA 제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판단됨

○ 신규 국제기구 발굴 관련 사항

- 서울에서는 매년 약 20여개의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을 발굴하여 UI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기구로 신청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UIA의 국제기구로 매년 등록되는 기관은 약 900~1,000여개 정도 인데 반면, 등록되는 수만큼 매년 국제기구가 없어지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발굴하여 UIA에 등록시키는 것은 UIA의 입장에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울의 입장에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활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 주었으면 함

○ UIA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한 사항

-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대해서는 활용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UIA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륙별 집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한 것, 연도별, 주제별 옵션을 다양화한 것 등 지난 몇 년 간 서울에서 제시해준 의견을 반영하여 UIA의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정교해 졌음
- 따라서,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UI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건의해 주기를 바람

☐ UIA 아시아 지부 설립에 관한 논의

○ UIA 아시아 지부 서울설립 의향

- UIA의 기관의 역량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자 기회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내

부적으로도 적합한 인재를 찾아 하고, 훈련시키고, 파견하기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UIA 아시아 지부 서울설립에 대한 고려 사항**

- 또한 직원의 규모에 따른 체재비, 인건비, 사무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도 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단계적으로 서울에 UIA 아시아 지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만약에 아시아 지부가 설립이 된다고 가정 했을 경우, UIA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일부는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설립의 최종단계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에서 UIA 아시아 지부를 유치할 의향이 있다면, UIA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설립에 대한 여부가 가시화 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 UIA Round Table Asia-Pacific 서울 개최 논의**

○ **2020년도 서울개최에 대한 UIA의 소감**

- 2020년도에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고,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아 매우 기대됨
-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서울시의 MICE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의지와 적극적으로 국제적 활동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라운드테이블 개최 장소로서 적합한 도시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 UIA와 서울시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2020년도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함

○ Round Table 주제 선정 관련 사항

- 라운드 테이블 행사의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 인 것 같음
- 서울에서 보다 특별한 주제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면 협의가 가능하며, 기조연설이나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평화를 주제로 선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주제는 UIA 회원으로 등록된 국제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공공선에 부합되기 때문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주제를 선정하여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회원기관들의 참여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함
- 한국은 분단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세가 남북간 교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평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화라는 주제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Round Table 개최 장소 관련 사항

- 개최장소는 컨벤션센터도 좋지만 약 200~300명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유니크 베뉴) 등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면 유니크 베뉴에서 개최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예로 2014년 더블린에서 개최했던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성에서 개최했는데 그때 참가자들의 반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한국은 매우 엄격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이나 규정 때문에 어렵겠지만, 꼭 궁이 아니어도 서울에 대한 역사가 깃들어 있는 의미있는 장소이면 좋겠고, 대학, 산업관광 차원에서의 스토리가 있는 기업 등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함
- 지난번 서울 방문시 DDP를 방문했었는데 건축양식이나, 내부의 시설들이 독특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DDP도 좋은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함

○ 사전 혹은 사후 관광프로그램 관련 사항

- 일반적으로 기존의 행사를 살펴보면 사후 보다는 사전투어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주말을 활용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주말 관광체험 활동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투어는 서울이 워낙 궁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좋긴 하지만, 궁궐 위주의 투어 보다는 서울의 독특한 역사 혹은 유서 깊은 대학, 독특한 장소 등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 행사에서도 반응이 좋았음
-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서울시와 서울에 소재한 국제기구들이 협력하는 사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혹은 서울시와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이루어 낸 공공선이나, 사회적 공헌을 상징하는 장소나 공간 등이 투어프로그램에 반영된다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2019 Round Table Asia-Pacific 태국에서의 미팅

- 올해 9월 태국의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모든 행사가 끝난 후 STO와 UIA가 함께 2020년도 서울개최를 위한 미팅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3 UIA 방문 및 회의진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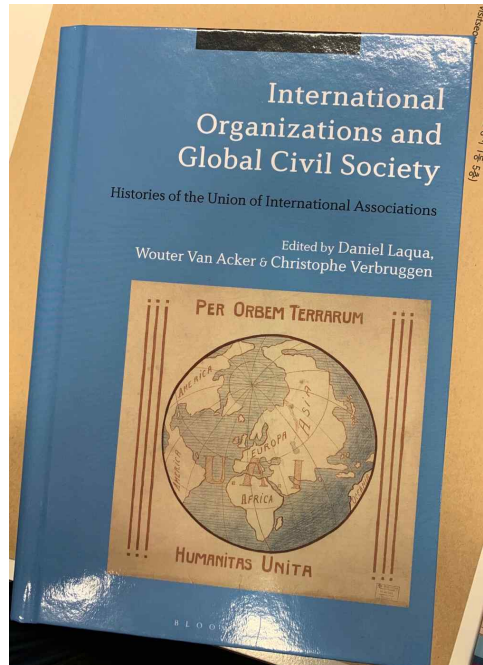
관광체육국장 공식서한 전달



UIA 본사 회의 진행



회의 종료 후 방문기념 촬영



UIA 신규 발간 도서 수령